

학술단신

미국서 '국제원효의 밤'

국제원효학회(본부장 송석구)는 21~24일 미국 플로리다 주 월트디즈니 스완호텔에서 열리는 미국종교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원효학 특별분과'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원효사상의 철학적 연구' '원효학의 문헌학적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22일에 '국제원효학의 밤' 리셉션을 연다.

20일 불교학회 논문발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는 추계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를 2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갖는다.

자유주제 발표로 진행되며 △근대 승니도성출입의 해금과 그 추이(김경집·동국대 강사) 등 7편이 발표된다. (02)260-3122

'원효사상 통일이념' 세미나

원효학회(회장 김영태)와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태남)은 제3회 '원효학연구 학술발표회'를 26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학 소강당에서 갖는다.

'원효사상의 교학과 통일이념 연구'를 주제로 △범화경중요에서 본 귀일사상(김영길·동국대) 등 총 8편이 발표된다. (0561)742-9922

“화엄사상 사회통합 정치적 기반” 최병현교수

탄허불교문화재단 '화엄사상' 학술발표

“통현장자-청량국사 정토관 달라” 각성스님

“탄허스님 현대화엄학 기초 다져” 정병삼교수



최병현교수는 “삼국통일에 있어 화엄사상은 절대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질 세력간의 조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후삼국 통일 후에는 균여(均如)가 화엄학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현행원의 신앙을 통해 분열의 시대에 대응하는 사상으로 역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교수는 “남북 관계에 있어 정치적 통일 후에 예상되는 사회통합의 문제나 현재 나타나는 영·호남의 갈등에 있어 화엄사상은 사회통합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화엄사상을 통해 분열을 극복했던 역사를 밝히고 재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성스님은 “통현과 청량의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선종(禪宗)에 대한 언급에서 사상적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량국사는 <화엄소초>에는 달미스님도 나오고 6조스님도 나오는 등 <화엄경>을 해석하며 선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반면, 통현장자는 전혀 선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통현장자는 유식(唯識)을 반어(般若)보다 상위(上位)로 보고 있으나 청량은 하위(下位)로 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육상원용(六相圓融)을 중시한 것(통현)과 중시하지 않은 것(청량), 보통 <화엄경>을 철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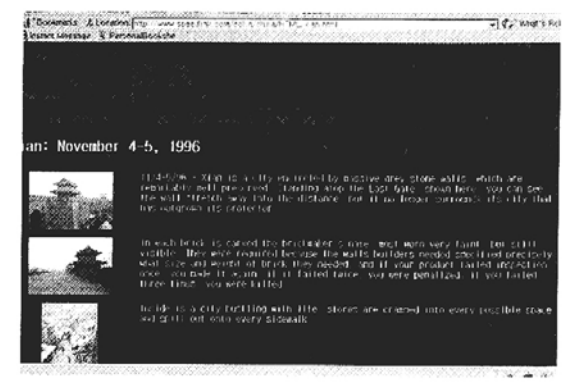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삼국통일에 있어 화엄사상은 절대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질 세력간의 조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후삼국 통일 후에는 균여(均如)가 화엄학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현행원의 신앙을 통해 분열의 시대에 대응하는 사상으로 역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교수는 “남북 관계에 있어 정치적 통일 후에 예상되는 사회통합의 문제나 현재 나타나는 영·호남의 갈등에 있어 화엄사상은 사회통합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화엄사상을 통해 분열을 극복했던 역사를 밝히고 재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교수는 “삼국통일과 후삼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앞선 경험에서 불교의 역할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화엄사상연구와 탄허대중사’에서 정병삼 교수(숙명여대)는 “탄허스님은 <신화엄경론> 역해 작업을 통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청량국사의 <화엄소초>를 위주로 이해해오던 화엄학의 경향을 새롭게 하여 지능의 선교통합적인 화엄 이해의 흐름을 되살리며 현대 화엄학의 대담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n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서안·돈황등 불교도시 유적감상 NASA 레이더 촬영 사진도 열람

인터넷의 정보망을 통해 실�크로드를 걷는 것은 네티즌만의 즐거움이다. 이곳에서 일 반적인 여행과 같이 서안, 돈황, 타워켄트 등 실�크로드의 대표 도시를 방문해 유적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불교와 실�크로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연대기적 사진으로는 △기원전 300년 불교의 북방 전파와 간다라미술 양식의 발전 △기원전 1년 인도 불교의 중앙아시아로 전파, 조라아스터교를 대신해 중앙아시아의 대표교인 종교로 발전 △100년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 △300년 돈황의 석굴사원 조성 등이 있다. 실�크로드는 1800년 콘스탄티노플 타클라마칸 사막의 고대 도시 불교유적이 발굴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독일의 리히텐박사가 실�크로드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오아시스의 고대도시들=기 발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이용, 불지네티즌들이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흥미진진한 사이트. 1994년 우주항공우주국(NASA)의 스페이스볼 레이더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촬영했다. 이때 이 사막에서 사라진 고대도시의 흔적들이 대거 발견돼 화제를 모았다.

△서안=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現 서안)은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의 한 중심지로 발전하여 왔다. 장안에서 난주를 거쳐 돈황에 이르고, 돈황으로부터 산악지대와 사막을 넘은 고 톨스런 대사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서안의 사원과 거리 풍물 등을 담은 사진 자료를 볼 수 있다.

△투루판=해발 4천m가 넘는 천산산맥의 만년설과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 지역인 해발 154m의 아딩골(Aydingkol) 호수가 있는 조그마한 기암 투루판은 실�크로드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독특한 역사와 불교문화를 지닌 곳이다. 이 사이트에 서는 실�크로드를 찾는 여행자들로 인해 봄비는 투루판의 생생한 모습과 절경지역인 몽고의 풍물이 소개된다.

△삼국사상=돈황 막고굴로 더욱 잘 알려진 감숙성은 중국의 중서부를 해당하는 지역. 황하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요, 돈황과 빙링 등 대규모의 석굴사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든다. 50여종에 달하는 장대한 석굴사원의 유적과 유물들이 생생한 그래픽으로 제공된다.

△실�크로드 사진=낙타, 돈황의 사구, 가옥의 개, 카슈가르의 시장, 카슈가르의 모스크, 빙링 석굴 등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태고보우국사 범통 재조명

대륜불교문화연구원 18일 학술발표회

“한국불교 종단사는 태고보우국사(太古普德國師·1301~1382)를 종조(宗祖)로 다시 쓰여져야 할 뿐 아니라 종조논쟁을 정리하고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1954년 불교분류 이후 태고보우·보조지눌 스님에 관한 종조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은 18일 오후 1시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사상과 범통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태고보우국사전서(太古普德國師全書)』 제3권 완결판 발간과 함께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는 지난 97년 제1차 학술발표회에 이은 두 번째로, 한국불교의 종조는 태고보우인가 보조지눌인가, 또 태고보우국사는 일제강점기를 이었던 가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 ‘태고선(太古禪)의 선풍(禪風)과 특색’에서 정태형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태고보우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국불교의 범통은 태고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태고보우의 범통이 일제강점기를 이어받았으므로 한국선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중국의 선지식인 석옥하

상에게서 심계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석옥하도 있어서 서로 계합된 것이었으니, 그것이 반드시 중국 일제강점의 선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태고보우가 출가 수선한 곳이 가지산(迦智山) 총림이었으므로 한국불교의 범통을 이어받 아 중흥시킨 분이 아니라고 하니 구산오교(九山五敎)를 회통시킨 원용부를 설치하여 이를 지양 했음을 보면 가지산파의 범통만을 이은 것이 아니라 선과 교를 회통시킨 분이라는 것.

『사산문도의 태고법통설 천명』에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임진왜란 이후 서산의 문도들에 의해 법통설이 강조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조계 종의 법손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려 했던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사명이 자신을 ‘조계종유(曹溪宗遺)’라고 했던 경우처럼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소속과 동시 그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임제 의현의 생애와 선사상 연구(성본스님·동국대) △태고 범통 확정 시적(史的) 고찰(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된다.

김정은 기자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 (<http://www.dharm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LOOK, I KNOW MONKS ARE NOT SUPPOSED TO TAKE FOOD AFTER MIDDAY.

BUT A FEW MINUTES DON'T MATTER IT'S REALLY THE SPIRIT OF THE PRECEPTS THAT ONE FOLLOWS.

PHARMA... ULP... I SLURP... YOU ALWAYS CHOMP MAKE ME GULP! FEEL SO... MMFF... GUILTY!

그래, 스님네는 정오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시계바늘이 12시1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이잖아. 게을름 정말이지 마음의 문제지구요.

(음식을 으쓱으쓱 씹으며) 불법이란... (고양이는 음식 냄새를 좋아한다) ... 너는 항상 내가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구나.

해설 너희를 비구는 게에 머무를 수 있게 되거든 마땅히 오근(五根)을 제어함으로써, 오욕(五欲)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치 소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감시함으로써, 소가 멋대로 날뛰어 남의 곡식을 못 먹게 해야 하는 것과 같다.

달마 가훈 보급 안내

“무불스님 달마상 및 가훈을 저렴한 가격으로 법보시합니다!!”

▲무불스님 달마가훈 33만장 10년 결사

통장입금우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37-52-042983 (예금주 박석구)

대한불교 조계종 **죽림사** 달마보급 가훈보급 선양회

■ 주문전화 051) 361-6662 ■ 주문팩스 051) 361-6663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국판/408면 값 7,500원

그냥 갈수 없는길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북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냥 갈수 없는길**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솔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수 없는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승을 읽고 발심, 1980년 법어사에서 상운지효(雲雲智孝)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불교교과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교과대학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개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누고 있다.

대표전화 : 420-3200
팩시밀리 : 420-3400